<인공신장실 코로나-19 실무 관련 Q&A>

1. 인공신장실에 COVID-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환자 혹은 직원이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확인이 되면 관할 보건소 및 학회에 환자의 발생을 알려서 도움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.
- 기존 투석 환자들에게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PCR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알려주고,
- 확진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동을 제한하고 가정내 체류할 것과 향후 혈액투석 계획을 안내합니다.

2.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내원할 때 인공신장실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-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방문시 특정 장소를 정하여 간이 분무 소독을 하고 환기 후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.
- **역학조사시 인공신장실 근무자의 근무스케줄, 환자 투석스케줄 및 외래 환자명단, 투석실 내부의 CCTV 영상** 등이 필요합니다.
- 이외에도 환자의 이동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내 CCTV 영상도 확인합니다.

3. 역학조사후 인공신장실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?

- 역학조사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인공신장실로 추가적인 방역의 시행을 요구합니다.
- **추가 방역은 투석공간의 청소 및 환기, 투석기기 및 침상 등 접촉면의 표면소독 등을 포함**합니다.
- 우선 대기실을 폐쇄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밀집을 피하고,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- 그 외 인공신장실에서는 투석 세션간 직원 및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, 접촉자 분류에 따라서 환자들의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1회 투석 세션의 환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이외에도 비말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상 간격을 조정하며,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 3회 투석환자를 주 2회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합니다.

2020-08-31

- 그리고 한 투석 세션이 끝나고 다음 투석 세션이 시작할 때 입실 및 퇴실하는 환자들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.

4. 인공신장실 외부에서의 접촉으로 자가격리자가 된 투석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에 따라서 가정내 체류 및 인공신장실로의 이동수단을 안내하며 방역당국에서 안내한 PCR 선별검사의 일정과 이후의 혈액투석 계획을 안내합니다.
- 가급적 독립된 시간 또는 공간에서 별도로 투석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며,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가 사항을 방역당국과 논의합니다.
- 투석시 필요한 의료진의 보호구 4종(N95 또는 KF94 마스크, 안면쉴드 혹은 보안경, 장갑, 일회용 가운)은 방역당국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습니다.
- 투석 후에는 기기 및 침상의 접촉면을 소독합니다.